

# 버드와이저 100년 전쟁

## Anheuser-Busch vs. Budejovický Budvar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인 버드와이저. 당신이 술을 마셔도 되는 합법적인 나이라면, 한번쯤은 마셔봤을 친숙한 맥주이다. 그런데 이 버드와이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표 분쟁에 휘말려 있는 맥주]라는 타이틀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유명한 맥주가 무려 100년 동안이나 상표 전쟁을 하고 있다.

### [분쟁의 역사]



체코에 있는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 (Budejovický Budvar)社

**1265년**, 체코의 프제미슬 오타카르 2세(Premysl Otakar II)가 부데요비체(Budejovice)마을에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주면서 이 지방의 맥주 주조방식이 공인된다. 당시 체코는 독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부데요비체(Budejovice)를 독일어로 부드바이스(Budweise)라고 하였다. 독일어를 쓰는 지역에서는 도시 이름 끝에 ‘-er’ 을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했는데, 부드바이저(Budweiser)도 독일어로 ‘부드바이스 (Budweise)에서 생산된 맥주’ 를 의미했다. 즉, 부드바이스(Budweise)에서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맥주에 부드바이저(Budweiser)라는 명칭을 붙이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던 것이다. 이 부드바이저(Budweiser)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버드와이저(Budweiser)가 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안호이저부시 (Anheuser-Busch)社

**1802년**, 체코의 부드바이스 양조장이 시의회로부터 부드바이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부드바이저(Budweiser)라는 로고가 들어간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1852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社의 전신인 조지 슈나이더의 양조장이 설립되었다.

**1878년**,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社가 버드와이저(Budweiser)를 미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 한다.

**1895년**, 소규모 양조장 중심으로 맥주를 생산하고 소비하던 체코 부데요비체(Budějovice) 지방의 부드바이스 양조장으로부터 현재의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설립된다.

**1900년대 초반**,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는 둘 다 동일한 철자(Budweiser)의 맥주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1911년**,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북미지역에서만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는 유럽에서 맥주를 판매하기로 한다. 이 당시만 해도 사실상 다른 대륙간 판매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937년**,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미국에 자체 브랜드의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

**1939년**, 체코가 독일에 합병되기 직전,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에 일시금을 지불하고 대신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는 북미에 맥주를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1981년**,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가 포르투갈에 버드와이저(Budweiser)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 포르투갈 법원이 상표권을 부여한다.

**1990년대 초반**,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와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6년**,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렬된다. 이 때부터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상표권 소송이 시작되었다.

**1996년**,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EU전역에서 통용되도록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를 EU상표로 출원 신청한다. 그러나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의 상표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1999년**, 스위스와 중국에서는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한다.

**2001년**,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가 포르투갈에 냈던 상표권에 대해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소송을 제기한다. 결국 포르투갈 대법원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포르투갈 내에서 원산지의 영어 명칭인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한다. 이것은 1986년 체코와 포르투갈의 협정에 따른 것이었다.

2002년,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는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표 분쟁으로 인해 체크바르(Czechvar)라는 이름으로 맥주를 수출하게 된다.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상표권을 가진 국가에서 판매하는 버드와이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 체크바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버드와이저

2004년 5월, 체코가 EU에 가입함으로써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는 EU가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진품) 표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를 비롯하여 부데요비체(Budějovice)의 여타 맥주회사들은 EU내에서 판매되는 자사 맥주에 ‘Budejovicke pivo’ 및 ‘Ceskobudejovicke pivo’라는 지리적표시(GI : Geographical Indications)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더불어 이것의 영어식 표기인 버드와이저(Budweiser) 표기 여부를 놓고 EU의 GI규정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다. 한편,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는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를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2004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한국내에서 “Budejovický Budvar”라는 체코 회사명과 함께 영문으로는 ‘Budweiser Budvar N.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한다.

2004년 6월, EU시장정책사무국은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가 체코의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이미 등록해 놓은 상표와 동일하므로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종전에 유지해온 국가별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가 1996년에 냈던 상표등록 신청서를 기각한다. EU법원이 각국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혼란은 가중된다.

2005년, 오스트리아 법원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버드(Bud)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나, 반대로 캄보디아에서는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사용권을 얻었다. 한편 영국법원은 두 가지 맥주를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다며 양사 모두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2005년 10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가 포르투갈에서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의 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한다.

2006년,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독일월드컵의 공식 스폰서였으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독일에서 버드와이저(Budweiser)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 버드와이저(Budweiser)의 약칭인 버드(Bud) 역시 독일 최고의 인기 맥주인 비트부르거(Bittburger)가 비트로 불리고 있어 독일 법원이 비트와 버드가 비슷하다며 버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한다. 그리하여 버드와이저도, 버드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당시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호이저부시 버드(Anheuser-Busch Bud)라는 이름으로 맥주를 출시하게 된다.



2006년 독일월드컵의 안호이저부시 버드(Anheuser-Busch Bud)

2008년 12월, EU 1심 재판소가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의 버드(Bud)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의 손을 들어준다.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가 버드(Bud)라는 상표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옛 체코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상태여서 체코의 EU 가입으로 개별 회원국에 등록된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의 상표권은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버드(Bud) 브랜드의 맥주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2009년 3월, 룩셈부르크 소재 EU 1심재판소는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가 개별국이 아닌 EU전역에서 맥주 등 음료에 버드와이저(Budweis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신청한데 대해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이 거절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시한다. 즉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27개 EU회원국을 포괄하는 단일 상표를 등록할 수 없으며, 대신 개별 회원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은 가능하게 되었다.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사의  
버드와이저를 파는 상점 간판



안호이저부시 (Anheuser-Busch)사의  
버드와이저를 파는 상점 간판

버드와이저 상표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미국의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수백년간 버드와이즈 지방에서 맥주를 만들어 온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일까.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미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체코의 부드바이즈(Budwise)에서 생산되는 맥주인 부드바이저(Budweiser)를 판매해 온 회사로서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회사에서 이미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놀랐을 것이다. 당시 체코는 공산국이었고, 상표권에 대한 개념도 희박했다. 이른바 '원조' 격인 것은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라고 할 수 있지만, 상표 출원을 먼저 하지 않았으므로 겪은 혼란은 무려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그간 두 회사는 86건의 상표권 분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Budějovický Budvar)사는 69번,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사는 12번 승소했다. 5번은 무승부였으며 아직도 40여 건의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맥주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